

15기 대구경북지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출범 선언문

조직을 건설하지 못한 4년간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우리는 오늘 15기 대경여대협의 출범을 선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녹록치 않은 지역 여학생운동의 현황과 보수적인 지역풍토, 그리고 몇 년간의 중앙조직 부재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대경여대협은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언제나 여성민중과 대구경북지역의 여대생들과 함께 이남사회모순의 고리를 끊어내고, 자주로운 국가에서 당당한 여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차게 싸워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모순과 차별은 곳곳에서 여성민중들을 억압하고 여성민중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

분단 60여년 동안 이남 사회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탈을 일삼아온 미국은 여성민중들의 애타는 목소리를 무시하고 이라크에 이어서 한반도에 대한 전쟁책동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전쟁의 폭력성은 가장 먼저 여성과 어린 아이들에 대한 폭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이다.

또한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침탈이 불러온 청년실업 50만 시대에 여성들은 가장 손쉬운 해고대상이 되면서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은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버렸다. '여성의 일'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미숙련 노동과 보조적인 역할'로 정의되는 여성차별적, 가부장적 사회모순으로 여대생의 실업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가고 있으며, 일자리를 구한다 하더라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적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사회는 성폭력적·가부장적 문화에 너무나 관대하다.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대생들은 새내기 오리엔테이션에서부터 성폭력적·가부장적 문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성폭력적·가부장적 문화로 인해 우리 사회는 100년 묵은 호주제의 뿌리를 뽑아내지 못하고, 이것이 자본주의와 결합하여 여성의 몸에 대한 상품화, 성 상품화로 이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한 친일잔재 역시 우리 사회 억압의 고리이다. 친일의 후손들이 그대로 친미로 남아서 국회에 드글거리면서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느라 급급해서 우리의 왜곡된 역사는 외면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많은 눈물의 세월은 아랑곳없이 친일파의 후손들은 '친일진상규명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버렸다. 이들이 바로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정략적인 목적으로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 지금의 탄핵정국까지 울고온 주범들이라는 사실은 누구라도 알고 있다.

2004년 대경여대협에 부여된 과제와 임무는 분명하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전쟁책동을 '우리민족제일주의' 기치들고 민족공조로 막아내고 전쟁과 폭력을 여성의 이름으로 반대하고 자주통일의 길로 달려나가야 한다.

우리는 여성의 노동권 확보, 여대생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으로 여성민중이 사회의 주체세력으로 설수 있도록 여성차별적 사회 모순의 고리를 끊어내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모든 성폭력적·가부장적 문화에 반대하고 일상적 성폭력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성폭력적 문화를 바꿔가기 위한 운동을 씬없이 벌어나갈 것이다. 호주제와 성매매, 성상품화등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적 제도와 구조를 반대하고 막아나서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도 노력을 기울여 얼룩진 역사를 바로잡아나갈 것이다.

억압과 차별을 넘어 사회의 모순을 깨부수고, 자주로운 통일조국에서 당당한 여성으로 서나가겠다는 굳은 각오와 결심으로 힘차게 15기 대경여대협의 출범을 선언한다.

2004년 4월 1일

자주의 옥토 15기 대구경북지역여대생대표자협의회